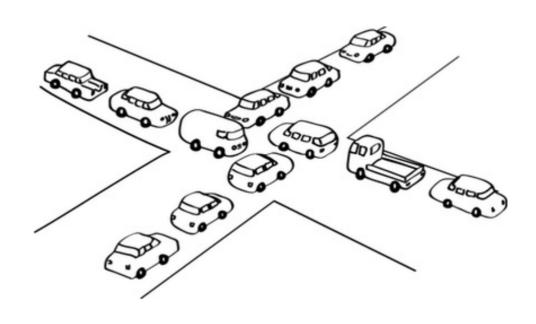
데드락(Deadlock, 교착상태)

간단 정리본.



1. 데드락의 개념

- 두 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
- o 하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다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갖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 인데 기다리는 상태가 끝나지 않음.

2. 데드락을 일으키는 조건

- ㅇ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.
- 1. Mutual exclusion (상호 배제): 매 순간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음
- 2. No preemption (비선점): 프로세스는 자원을 스스로 내어놓을 뿐 강제로 빼앗기지 않음
- 3. Hold and wait (점유와 대기): 자원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른 자원을 기다리고 있음
- 4. Circular wait (원형 대기): 자원을 기다리는 프로세스간에 사이클 형성

3. 데드락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

o **예방**: 데드락을 일으키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만족하게 하기 (mutual exclution(상호배제)는 데이터 일관성 문제로

불만족 시킬 수 없기에 다른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불만족시켜야 한다.)

■ No Preemption : 다른 리소스를 즉시 못 받는 상황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도 반 납하여 필요한

프로세스에서 사용하도록 하기.

- Hold and wait :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요구하게 하여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기.
- Circular wait: 리소스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사용.

일반적으로 자원 사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.

o **회피**: Unsafe State에 진입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을 검사해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

사전에 회피하는 방식.

■ safe state : 데드락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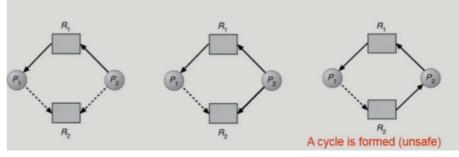
■ unsafe state : 데드락 가능성 있음

■ 순서

- 1. 프로세스가 자원 요청시, 자원을 할당한 후에도 안정 상태로 남아있는지 사전 검사
- 2. 안정 상태라면 자원을 할당
- 3. 불안정 상태라면 다른 프로세스가 자원을 해지할 때까지 대기
- 알고리즘의 종류
 - 1. 자원 할당 그래프 알고리즘

Resource Allocation Graph algorithm

- **Claim edge** P_i → R_j
 - \checkmark 프로세스 P_i 가 자원 R_i 를 미래에 요청할 수 있음을 뜻함 (점선으로 표시)
 - ✓ 프로세스가 해당 자원 요청시 request edge로 바뀜 (실선)
 - ✓ R_i가 release되면 assignment edge는 다시 claim edge로 바뀐다
- → request edge의 assignment edge 변경시 (점선을 포함하여) cycle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만 요청 자원을 할당한다
- → Cycle 생성 여부 조사시 프로세스의 수가 n일 때 O(n²) 시간이 걸린다



2. 은행원 알고리즘

Example of Banker's Algorithm → 5 processes Po P1 P2 P3 P4 → 3 resource types A (10), B (5), and C (7) instances. 10 5 7 → Snapshot at time T₀ Need (Max - Allocation) Allocation Max Available ABC ABCABCABC P_0 010 753 332 743 P_1 200 322 122 P_2 302 902 600 P_3 211 222 011 433 P_4 002 431 * sequence < P_1 , P_3 , P_4 , P_2 , P_0 >가 존재하므로 시스템은 safe st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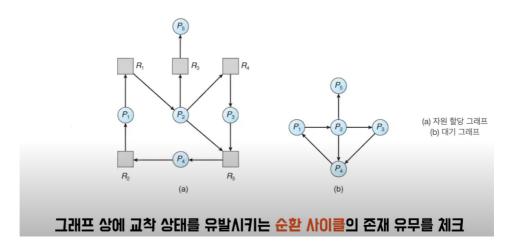
자원을 요청할 때마다 시스템 상태를 검사하는 만큼 오버헤드가 크며 은행원 알고리즘의 경우 전제 조건이 많다.

탐지와 회복: 교착 상태를 허용하지만 상태를 탐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으로
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, 시스템에 발생한 데드락을 체크하고 회복

■ 알고리즘 종류:

1. Single Instance - Wait-for graph

자원 할당 그래프의 변형이며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. 또한 자원이 하나 뿐인때 사이클을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.



2. Multiple Instance

Banker's 알고리즘과 유사하며 우선 가용자원인 Available을 전부 주고 나중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녀석, 즉 자원을 요청하지 않은 자원인 아래 사진에서의 P0,P2 의 경우 가진 자원을 내어 놓게 되면 가용자원이 늘어나게 되어 다른 자원의 요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.

Deadlock Detection and Recovery

- → Resource type 당 multiple instance인 경우
 - \checkmark 5 processes: $P_0 P_1 P_2 P_3 P_4$
 - \checkmark 3 resource types: A (7), B (2), and C (6) instances
 - ✓ Snapshot at time T_0 :

	Allocation	Request	Available
	ABC	ABC	ABC
P_0	010	000	000
P_1	200	202	
P_2	303	000	
P_3	211	100	
P_4	002	002	

- ✓ No deadlock: sequence $\langle P_0, P_2, P_3, P_1, P_4 \rangle$ will work!
- ☑ "Request"는 추가요청가능량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요청한 자원량을 나타냄

- 만약 데드락 발생하면
 - 1. 프로세스 종료:
 - 교착 상태의 프로세스를 모두 중지
 - 교착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한 프로세스씩 중지
 - 2. 자원 선점:
 -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선정
 - 교착 상태가 제거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을 선점해 다른 프로세스 에게 할당
- 회복시 고려 사항
 - 1. 희생자 선택
 - 2. 후퇴 (Rollback)
 - 3. 기아 상태 (Starvation)
- ㅇ 무시: 교착 상태 자체를 무시하고,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.

애초에 Deadlock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에 Deadlock에 대한 조치 자체가 더 큰 overhead일 수 있다는 것.